

내년 초 10%대 전망... 천장 없는 대출금리에 차주들 '한숨'

4대 은행 주담대 금리 8% 근접
1등급 고신용자 4.77%~5.65%
중신용자 7%, 저신용자 10% 넘어
"업계, 연말 9%대 내년 10% 예상"

#. 지난해 6월 A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3.5%에 4억원 가량을 대출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서울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내 집 마련에 집만 봐도 기분이 좋았다는 A씨의 부푼 마음은 1년 새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1년 만에 대출금리가 6% 중반으로 치솟으면서 월 이자만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월 116만원이었던 이자는 215만원으로 불어났고 아파트 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최고 8% 돌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초에는 10%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나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오면서 차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5.28~7.80%다. 변동금리는 지난해 중순 연 2.35~3.99% 수준에 머물렀지만 1년 반만에 상당 금리가 8%에 근접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전월(3.40%) 대비

0.58%포인트(p) 상승해 4%대에 근접했다. 지난 2010년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상승폭 또한 최대치로 지난 7월 최대 월간 상승폭(0.52%)을 경신했다. 지난달 코픽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 단행 이후 은행권 수신금리가 동반 상

승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고신용자의 주담대까지 연 5%로 뛰었고, 신용대출의 경우 6%를 넘어섰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이 취급한 고신용자 주담대 금리(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를 보면 우리은행이 5.64%였다. 신용평가사(KCB) 기준 평균신용점수 구간이 1000~951점으로 신용등급이 1등급인 대출자다. 이어 농협은행 5.55% ▲하나은행 5.43% ▲신한은행 5.04% ▲KB국민은행 4.77% 순이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급등했다. 4대 은행의 고신용자대상 신용대출금리는 지난해 8월말 연 3.02~4.17%에서 지난 18일 6.14~7.46%로 올랐다.

평균신용점수 구간인 950~901점대를 보면 농협은행이 6.24%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은 6.23%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 6.19%, 우리은행 6.14%, 국민은행 5.97% 순으로 나

타났다.

1년 3개월 만에 하단 금리가 3%p나 오른 셈이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5~6%에 근접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5% 이하 대출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850점 이하 중신용자는 금리가 7%를 넘어섰고 저신용자는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계에서 대출 상품금리가 연말에는 9%를 넘어서 내년 초는 1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최근 대출을 갚는 차주도 증가했지만 이자 경감 방법을 문의하는 차주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5% 금리로 주담대 4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균등상환형식으로 빌린다면, 월 이자는 104만원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총 216만원이다. 그러나 금리가 1%p만 올라도 240만원까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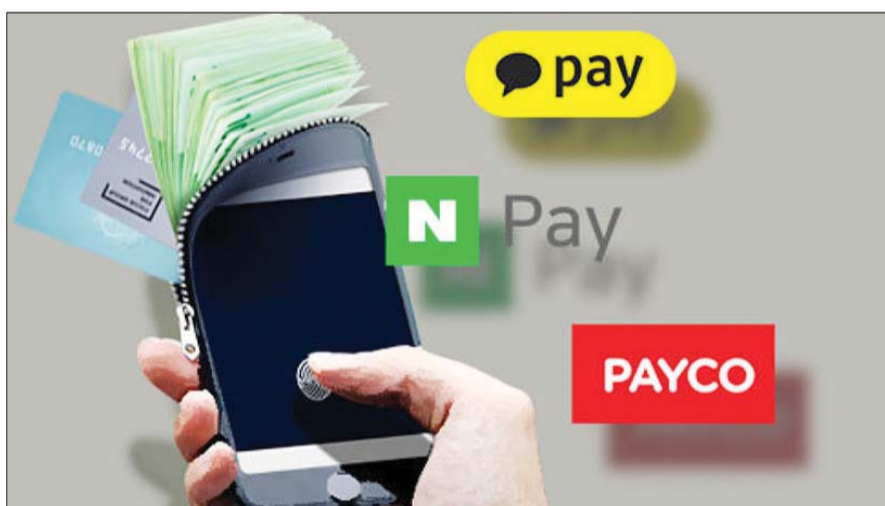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시장 '발칵'... 자영업자·벤사 피해 우려

가맹점과 직접계약 체결 의무화 등 국회 정무위에 법안심사 안건 올라
통과땐 빅테크사 '가맹점 재모집' 벤사·PG사, 주업무 축소 불가피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유진(30·가명)씨는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소식을 듣자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한 개 매장서 여러 상호를 등록해 피자과 치킨, 족발 등 여러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불업자와 직접 계약 의무화가 진행되면 한동안 고객을 잃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있어 계약 기간도 미지수고 필요한 만큼 재료를 구매하고 영업하는 식당의 특성상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8월 '떡볶이' 논란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선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자)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올랐다.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 확대 ▲이용자 예약금 전액 신탁 의무화 ▲정당한 이유 없는 가맹점

축소 후 이용자 잔액 전부 지급 ▲가맹점과 직접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다. 이 가운데 네번째 사항인 가맹점과 직접 계약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가맹점과의 직접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운영하는 빅테크사는 물론 벤(VAN)사와 결제대행(PG)사, 소상공인에게가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빅테크사들은 벤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벤사는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을 빅테크사로 중계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선불업자와 가맹점주의 직접 계약이 의무화되면 빅테크사들은 가맹점을 처음부터 재모집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만으로 전국 영업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영세사업자다. 한 곳의 빅테크사와 전국에 분포한 영세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해나가는 동안 일부 소상공인들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사용 고객을 통째로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급과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면 빅테크사와 전국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사업자는 선불결제 이용 고객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사와 PG사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점을 모집해 선불업체와 직 계약을 맺는 것이 주업무인데 빅테크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하게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결제대행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사의 선불 결제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결제대행사가 빅테크사를 놓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수익창구를 잃는 셈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제대행사가 될 수도 있다"며 "논의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한카드,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서 '대통령 표창'

카드 News

NH농협카드-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체결

신한카드가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상품·서비스·디자인 등 높은 점수

신한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디자인 경영의 일환으로 드랄루민 소재사용을 추진했다. 또한 빛을 비추면 숨겨진 로고가 드러나는 디오이(DOE) 라이팅 기술 등 신소재를 활용

한 카드 플레이트를 강화했다.

신한플레이(pLay)와 광고 영상, 소통 공간에 등을 일관되게 구현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신한카드 을지로사이'와 '을지로 셔터갤러리' 등 휴게 공간에 예술을 더한 경험을 기반으로 '신한플레이 뮤지컬 라운지', '신한카드 더 프리뷰'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그리고,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가 주관하는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올해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의 확고한 디자인 철학과 창의적 장인 정신을 지향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일류 플랫폼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선다.

◆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 공동연구 추진
NH농협카드는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적발한 피해유형 및 예방법을 골자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서민금융연구원 포럼 행사에서 카드FD관리팀은 '카드결제계좌정지 예방체계 및 구축사례', 'NH피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왼쪽)과 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카드

싱방지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금융기관 등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사고사례 파악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